

# 보도자료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배포일	2017. 12. 26.(화)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재)서울대발전기금(기획팀)	문의	변영현 (871-1621)

## ‘우직한 촌사람, 강직한 법조인’

### 靜石 변무관 변호사의 아름다운 유산

2017년 12월 10일(일) 타계한 우리나라 대표 법조인 변무관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선한인재 장학금에 30억원을 쾌척했다.

지난 2015년 9월 변무관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생의 생활비 장학금인 선한인재 장학금에 30억원을 기부했다. 고인은 평소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 기부를 당시에는 외부에 밝히길 꺼려하였으나, 기부자의 아름다운 뜻을 사회에 알려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 서울대의 요청에 유족들이 응하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성낙인 총장은 “변호사님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목으로 우리 사회 법질서 확립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며 많은 후배를 양성하셨다”며 “기부해주신 ‘변무관 선한 인재 장학금’은 고인과 가족의 뜻을 받들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부 당시 변무관 변호사는 “항상 베푸는 나눔의 자세로 선배나 후배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며 “우리나라의 기둥인

서울대 장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의기와 겸손을 모두 갖춘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고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故 변무관 변호사는 1922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일본 주오대 유학 당시 일본 제국의 학도병에 징집되기도 했으며, 해방 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지검장, 대검 총무부장 등을 역임한 변 변호사는 검사 30년, 변호사 30년 등 평생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직한 법조인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와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변호사 사무실 시보를 거친 70여 명의 후배 법조인들이 故변무관 변호사의 호를 따 정석회(靜石會)를 구성하는 등 故변무관 변호사는 법조인들의 존경을 받아왔으며, 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연구하는 자세로 많은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어왔으며, 2014년 자서전 「나는 역시 우직한 촌사람이었다」를 출간 하기도 했다.

※ 사진설명: 협약식 당시(2015년 9월) 감사패 전달 후 성낙인 총장과 변무관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